

## □ ■ ■ 사건일지 2008-2009 ■ ■ □

### 《2008년》

[1월 10일]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이 2002년 이후 잡혀 있던 인질 두 사람을 풀어준다. 대선주자 잉그리드 베탕쿠르의 캠페인 비서였던 폰수엘로 빠르도모와 끌라라 로하스가 그들이다.

[2월 24일] 라울 카스트로가 쿠바의 국가평의회 의장으로 피선되다. 이는 피델 카스트로가 의장직을 떠나기로 선언한 이후 며칠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이 조치는 2006년 7월 이래 건강상 이유로 일선에서 후퇴하기로 한 것을 공식화한 것이다.

[3월 1일] 콜롬비아 군이 에콰도르 영내에 진입하여 콜롬비아무장혁명군의 한 분견대를 추적한 바 있는데, 이 사건은 역내에 외교적 위기를 초래한다. 콜롬비아의 공격은 군사적 의미에서는 성공이었다. 게릴라군의 제2인자 라울 레예스를 사살했기 때문이다. 에콰도르, 그 뒤를 이어 베네수엘라, 니카라과가 콜롬비아와 외교관계를 단절한다.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국경 지대에 군대를 배치한다.

[3월 6일] 미주기구(OAS)는 외교적 위기에 대해 온건한 결정을 수용한다. 미주기구는 콜롬비아의 영내 침입에 유감을 표시하지만, 강하게 비난하지는 않는다.

[3월 7일] 제20차 리우그룹 정상회의가 산토도밍고에서 개최되다. 회의의 주된 의제는 에너지였지만 밀려나고, 최근 콜롬비아와 이웃

나라들 사이에 발생한 외교적 위기의 조정이 주로 논의된다.

**[3월 8일]** 조지 부시 대통령은 브라질을 방문하여 바이오연료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다. 브라질은 사탕수수를 이용한 바이오연료 생산의 강국이다.

**[3월 18일]** 아르헨티나 정부가 농산물 수출세를 25% 인상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자 생산자들의 데모가 시작된다. 정부는 대두, 해바라기, 옥수수, 밀의 수출 시 수출세를 증세하여 재정수입을 늘리고자 했다. 소요운동은 4월과 5월에 확대되어, 수차례의 데모와 도로점거, 상품의 출하 중단 등으로 표현되었다.

**[4월]** 아이티에서 식료품 가격의 상승으로 폭동이 발생하여, 적어도 5명이 사망하고 200여명의 부상자가 생긴다. 4월 12일 수상 자크 에두아르드 알렉시스는 상원의원들에 의해 물러났다. 상원의원들은 수상이 폭동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을 질타하였다. 13일에 세계은행은 1천만 달러의 원조를 제공한다.

**[4월 10일]** 중미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범죄자들의 초국적 갱조직 마라(mara)를 척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조정할 목적으로 엘살바도르에서 중미 국가들, 멕시코, 미국 정부가 회동함.

**[4월 18일]** 중미와 유럽연합의 협력협정을 협상하는 제3차 라운드가 개최되었지만 별 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다. 자유무역 분야에서 협상의 난제는 열대작물(바나나, 설탕)을 둘러싼 차이점이다.

**[4월 20일]** 파라과이 대선에서 페르난도 루고가 41%의 지지를 얻

어서 대통령에 당선되다. ‘빈자의 사제’로 알려진 성직자 출신인 그는 온건한 좌파의 담론을 무기로, 61년간 지배를 독점해온 꼴로라도당의 지배를 끝냈다.

**[5월 4일]** 볼리비아의 부유한 주 산따끄루스 주에서 자치를 둘러싼 찬반투표가 있었는데, 투표자 80%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다. 이와 유사한 국민투표가 이웃 세 주에서도 있었다. 이 결과를 보면 에보 모랄레스를 지지하는 안데스 지역과 야당이 지배하는 동부의 부유한 주들 사이의 간극은 대단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월 15-17일]** 페루의 리마에서 제5차 유럽연합-라틴아메리카 국가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최종 선언문은 무역 활성화, 빈곤과 기후난화 퇴치를 위한 공동행동을 강조한다.

**[5월 16일]** 도미니카공화국의 대선에서 레오넬 페르난데스가 53.8%의 지지로 재선에 성공하다. 중도파 대통령은 이미 1996-2000년, 2005-2008년에 두 번의 임기를 채운 바 있다.

**[5월 23일]** 남미국가연합(Unasur)을 창설하는 조약이 브라질리아에서 조인되다. 이 기구는 남미 국가 전체가 참여하는 정치, 경제 통합체로 유럽연합을 모델로 만들어졌다. 이 기구는 2004년 10월에 결성된 남미국가공동체(CNS)를 모태로 재편되다.

**[5월 25일]**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은 역사적 지도자인 마누엘 마를란다, 애칭 '띠로피호'의 사망을 발표하다. 향년 80세로 그는 게릴라 단체가 결성된 1964년부터 지도자로 활동해왔다. 후임은 조직의 이론가이자 전략가인 알폰소 까노로 정해지다.

[6월 10일] 쿠바에서 임금 상한제 원칙이 폐지되다. 이제부터 임금 액은 피고용자의 과업과 실적에 따라 정해진다.

[6월 20일] 유럽연합은 2003년부터 취해진 대 쿠바 제재를 완전히 해제하기로 결정하다. 대 쿠바 제재는 2005년 이래 일시적으로 유예된 바 있다.

[7월 15일] 20만명의 인파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집결하여 정부의 농업정책(대두 수출세 증세)에 반대하는 데모를 하다. 증세법안은 하원에서 가결되었지만 상원에서는 부결된다. 이 여파로 농산부장관과 대통령 각료회의 총리가 사직을 하다.

[8월 10일] 볼리비아에서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의 신임을 둘러싸고 국민투표가 있었는데, 모랄레스는 67.4%의 지지로 권좌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다른 한편 야당 주지사들 대부분도 똑같이 신임투표에서 승리를 한다.

[8월 25일] 온두라스가 '미주를 위한 볼리바르적 대안'(ALBA)에 가입을 하다. 알바는 반미 성향의 정치, 경제 협력체로 베네수엘라, 쿠바, 볼리비아,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이 가입되어 있다.

[9월 10-15일] 볼리비아에서 모랄레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과 동부의 자치를 주장하는 주지사들을 지지하는 세력이 충돌하여 3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다. 볼리비아의 국내정치 위기에 미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더해지다. 주 볼리비아 미국대사는 자치주의 주들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볼리비아에서 추방되다.

[9월 15일] 남미국가연합(Unasur)의 특별정상회의가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바첼렛 대통령의 주재로 개최되다. 이 회의는 볼리비아의 정치적 위기 속에서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소집된 것이다. 2008년 5월에 창설된 우나수르는 남미 국가 전체가 참가하는 상설국제기구이다.

[9월 28일] 에콰도르의 개정헌법안이 국민투표에서 63.9%의 지지로 승인되다. 신헌법은 국가의 다종족적 성격을 강조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였으며, 국가가 경제, 사회 정책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명시하였다. 또 외국군대의 주둔도 금지하였는데, 이로 인해 만따의 미군기지는 폐쇄될 것이다.

[10월 5-26일] 브라질 총선에서 집권여당 연립을 구성하는 정당들, 특히 룰라 대통령의 여당인 노동자당(PT)이 선전을 하다. 노동자당은 상파울루를 위시한 몇몇 주도에서 패배하였지만, 주요한 도시들에서 선전을 하였다.

[10월 26일] 콜롬비아의 우리베 대통령은, 민간인들을 게릴라 단체의 성원으로 간주하여 학살한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3명의 장군을 포함한 30여명의 군인들을 퇴출시킨다. 이 조치는 유엔인권담당 고등판무관 사무소의 한 책임자의 조사와 권고에 따른 것이다.

[10월 26일] 칠레 선거에서 우파 정당들이 중도좌파 연립여당들보다 약간 앞서다. 여당연립인 콘세르파시온의 패배는 별로 심각하지는 않았고, 선거 전의 여론조사에서도 감지되지 않았다. 하지만 2009년 12월 대선을 앞둔 과정에서 무언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

[10월 28-31일] 제18차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의가 엘살바도르의 수도 산살바도르에서 개최되다. 토론의 주제는 주로 경제위기와 청년문제에 집중되었다. 태평양 연안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11월에 있을 APEC 정상회담을 겨냥하여 태평양연안그룹을 결성하고 경제협력 메커니즘을 조율하다.

[11월 9일] 니카라과 총선에서 여당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FSLN)이 승리를 거두다. 국제참관인단은 선거관리기구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평하다. 미주기구, 카터센터, 유럽연합 등의 선언에 니카라과 여당의 반응도 뜨거웠다.

[11월 22-24일] 페루 리마에서 21개국 회원국이 참여하는 APEC 정상회담이 열린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멕시코, 페루, 칠레가 참석했다. APEC은 환태평양 무역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결성된 것이다.

[11월 22-30일] 러시아 대통령 메드베데프가 페루, 브라질, 베네수엘라, 쿠바에 국빈방문을 하다. 러시아는 페루와 브라질과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베네수엘라와는 에너지,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다. 러시아와 아르헨티나 사이의 협력협정은 12월 10일에 조인되다.

[11월 25-26일] 페루군 총사령관의 반(反)칠레적 제안을 담은 비디오가 인터넷에 확산되자 양국간 외교가 위기에 봉착한다. 페루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지만 이 사건은 양국 사이의 오랜 긴장을 그대로 노출한다. 페루는 국경선 분쟁을 둘러싼 국제사법재판소의 요구를 2007년 1월에 거부한 바 있다.

[12월 17일] 브라질의 꼬스파 다 사우이빠에서 리우그룹 정상회담이 열린다. 리우그룹은 쿠바의 재가입을 선언한다. 리우그룹은 라틴아메리카 국가 모두가 가입한 정치적 조정 및 협력 메커니즘이다. 이 회담에서 우나수르(남미국가연합, Unasur)를 확대하여, 중미와 멕시코까지 참여한 새로운 라틴아메리카의 국제기구로 재편하자는 제안이 제출되다.

## 《2009년》

[1월 1일] 코스타리카에서 미국과 중미 사이에 맺은 자유무역협정(CAFTA)의 효력이 발생하다. 2007년 10월에 국민투표를 치르고 협정을 비준한 유일한 나라인 코스타리카는 약간의 휴지기를 지난 후 협정을 발효시켰다.

[1월 25일] 볼리비아에서 헌법 개헌안이 61.4%의 찬성으로 통과되다. 새로운 헌법은 원주민 인구에 강력한 자치권을 부여하고, 경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폭넓게 부여하고 있다.

[2월 15일]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54.8%의 찬성으로 승인되다. 공화국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에 재선을 허용하면서, 차베스는 계속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2007년 12월의 국민투표에서는 대통령의 재선을 포함한 많은 개혁안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었다.

[3월 11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남미국가연합(Unasur) 산하의 기구 남미방위협의회(Consejo de Defensa Suramericano)가 출범한다.

12개국의 국방장관들이 선언한 원칙에는 주권에 대한 ‘무제한적 존중’, 영토의 통합성과 불가침성, 불간섭에 대한 지지, 국민의 자결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안보는 남미인들의 손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3월 15일]** 엘살바도르 대통령 선거에서 파라분도마르티 민족해방전선(FMLN)의 후보 마우리시오 푸네스가 51.3%의 지지로 1989년 이래 집권을 해온 ARENA 당의 후보를 물리친다. FMLN은 1월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선두를 유지한 바 있다. 하지만 총의석 84석 가운데 35석에 머물러 상대적 다수를 유지하는 데는 실패했다.

**[4월 1일]** 2007년 10월 이래 진행된 중미와 유럽연합 사이의 협력 협정 협상은 위기를 순간을 맞는다. 제7차 라운드테이블 협상이 진행될 때 다니엘 오르떼가 대통령은 니카라과의 불참을 선언한다. 유럽연합이 해당국의 선거를 강하게 비난했기 때문이다.

**[4월 17-19일]** 제5차 미주정상회의가 트리니다드토바고의 포트오브스페인에서 열린다. 버락 오바마의 연설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는데, 미국은 라틴아메리카와 동등한 자격으로 협력을 할 의지가 있음을 표명한다.

**[4월 26일]** 에콰도르에서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이 52%의 지지를 얻어 재선에 성공하다. 여당은 국회 의석 100석 가운데 61석을 차지하여 다수당의 지위를 얻는다.

**[5월 3일]** 파나마 대선에서 우익 정당연합의 후보 리카르도 마르띠넬리가 60%의 지지를 얻어, 마르틴 또리호스 정부의 장관이었던 발



비나 에레라 후보를 물리치다.

[5월 14일] 유럽연합과 라틴아메리카의 장관급 회의가 공동협력 프로젝트를 재발주하기 위해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열린다. 니카라과와의 관계가 아직은 긴장 속에 있지만 회의는 비공식적으로는 공조를 모색하다.

[5월 27일-6월 3일] 대만 총통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벨리즈를 국민방문하다. 대만과 중미의 역사적인 협력 관계는 2007년 6월에 코스타리카가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균열의 조짐을 보인다.

[6월 3일] 미주기구(OAS)의 제37차 총회가 온두라스의 산페드로술라에서 열린다. 미주기구는 1962년 이래 참여 자격이 정지된 쿠바의 재가입을 의결한다. 쿠바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한 재가입의 단서조항을 거절한다.

[6월 10일] 페루 정부는 아마존 삼림채굴법령을 재상정한다. 이 법령은 아마존 원주민 공동체의 광범한 동원(데모, 도로 절단 등)을 야기한다. 시위대 진압과정에서 3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

[6월 24일] '미주를 위한 볼리바르적 대안'(ALBA) 정상회담이 베네수엘라 까라보보에서 열린다. 회담에서 에콰도르, 카리브의 두 섬나라 국가(안티구아와 바르부다, 세인트-빈센트와 그레나딘)의 가입을 확인하다.

[6월 28일] 온두라스 군부가 마누엘 셀라야 대통령을 축출하고 권

력을 장악한다. 셀라야는 집권 이래 과두제 세력이 중심인 기득권층을 공격하고 최저임금을 66%나 올리는 정책으로 보수세력과 언론의 공격을 받아왔다. 차베스와도 가까운 셀라야는 '미주를 위한 볼리바르적 대안'(ALBA)에 가입한 바 있다. 로베르토 미첼레띠가 임시 대통령에 오른다.

**[7월 5일]** 멕시코에서 국회의원, 주지사 등을 뽑는 중간선거가 열려 제도혁명당(PRI)이 크게 승리한다. 여당의 지지율은 27%인데 반해 제도혁명당은 35%, 중도좌파 정당인 민주행동당(PRD)은 12%를 얻었다. 깔데론 대통령의 향후 정국 운영이 쉽지 않게 되었다.

**[8월 26일]** 남미국가연합(Unasur) 긴급정상회담에 참여한 피델 카스트로는 콜롬비아의 미군기지 협정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진행하고 있는 “혁명적 과정을 제거”하고 “석유에 대한 통제를 확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0월 29일]** 브라질 상원의 외교위원회는 7개월 동안 끌어온 베네수엘라의 메르코수르 가입안을 11대 5로 가결시키다. 이로서 베네수엘라의 가입은 파라과이 의회의 비준만 통과하면 가능하다.

**[10월 30일]** 콜롬비아는 자국 영내에 7개의 군사기지를 미국에 임대하는 협정을 맺는다. 이제 미국은 전함의 기항, 육군과 공군의 주둔을 통해서 남미에 대한 전략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군사기지는 마약 테러의 소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브라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은 미국의 역내문제 간섭과 주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11월 11일] 브라질에서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하여 18개 주 800여개 도시가 영향을 받다. 연방지구, 리우데자네이루, 상파울루, 벨루오리존치 등은 4시간 동안 암흑이었다. 사고는 강풍과 폭우에 따른 송전망의 교란이 이따이부 수력발전소로 전이되어 일어났다고 한다.

[11월 29일] 온두라스에서 대선이 열려 국민당 후보 뽀르피리오 빼빼 로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마누엘 셀라야 전 대통령은 테구시갈파의 브라질 대사관에서 계속 발이 묶여 있다. 코스타리카, 파나마, 미국, 페루, 콜롬비아, 멕시코 등이 로보의 당선을 인정했으나, 메르코수르 회원국들은 선거를 비난한 바 있다.

[12월 6일] 볼리비아에서 중간선거가 열려 여당인 사회주의운동당(MAS)이 62%의 지지를 얻어 압승을 한다. MAS는 상원 36석 가운데 24석을, 하원 130석 가운데 84석을 차지하여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의 개혁 정치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12월 13일] 칠레에서 대선 1차 투표가 실시된다. 여당연립(콘세르파시온)의 프레이 후보가 29.6%, 야권의 우파 단일 후보 삐네라가 44.05%, 독립후보 마르코 엔리께스-오미나미가 20.13%를 얻었다. 여당연립은 1989년 대선 때부터 네 번 연속 승리하여 20년간 집권한 후 처음으로 야당 후보에게 승리를 내주었다. 그러나 과반수 당선자가 없으므로 삐네라와 프레이 간의 2차 결선투표가 예정되어 있다.